

일감·임금 감소…광주 일용직 노동 현장 ‘칼바람’

경기침체·미분양에 건설 중단 속출…일당 17만→15만원

소개소도 정산 지연에 줄페짐…“노동시장 사실상 붕괴”

“올여름부터 일당이 2~3만원씩 줄고, 일감까지 사라지니 소개소에 사람이 없슴니다. 문 닫은 곳도 많아요.”

3일 오전 6시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직업 소개소, 칼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희미한 날로 불빛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인력 을 구하는 업체의 전화도, 일감을 찾아 기웃대는 노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허공만 명하니 바라보는 업주들의 모습은 얼어붙은 지역 간선경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여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최대 일감 공급처인 아파트 공사가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로 잇따라 중단됐고, 건설 수요가 가장 많

은 7~8월에는 기록적 폭우까지 겹쳐 현장이 줄줄이 멈춰섰다. 당시 사업자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낮췄던 일당 조정이 되레 “하향 고착”으로 굳어지면서 일용직 업계를 더욱 악화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올해 초 17만~18만원 수준이던 지역 일용직 일당은 8월 이후 15만~16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 ‘최후 버팀목’이던 임금이 무너지자 직업소개소를 찾는 발길을 뚜 끊겼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더 축소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직업소개소 업계는 광주에 약 400곳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10~15%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로 추정된다. “혹여 누가



3일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직업소개소가 불이 꺼진채 문이 닫혀 있다.

을까” 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문을 열어 두지마 들어오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뿐이다.

유동에서 소개소를 운영하는 A씨(80)는 “올해 1월만 해도 하루 20~30명씩 노동자가 있는데 지금은 3~4명 수준”이라며 “일거리를 소개하던 업체도 30~40곳에서 3~4곳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고 후회했다.

이어 “지하철공사가 들어와도 단가가

탄했다.

남구 월산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문을 열어 둔 소개소가 많지만 내부에는 노동자 한두 명과 업주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월산동 일대 25곳 중 3~4곳은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강모씨(60)는 “경기가 좋을 때는 하루 70~80명이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며 “건설 원가 상승, 정부 정책 변화, 미분양 증가 등이 한꺼번에 겹쳐면서 건설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수완지구·신기동·광천동 등도 분양이 안 되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임동 일산방직과 전남방직 일대 개발 같은 대형사업만이 마지막 기대”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엄재우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해물 07:25 일몰 16:20
해뜨 17:20 물결 06:25



오월단체, ‘전남 5·18기념관’ 국비 확보 환영

전남도의 ‘전남 5·18기념관’ 국비 확보에 오월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3일 ‘전남도가 목포역 인근에 ‘전남 5·18기념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수년간의 숙원이었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념관은 전남 5·18의 역사와 힌신을 올바르게 기록·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5·18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이 돼야 한다”면서 “자료 아카이브, 구축, 국제 학술 교류, 해외 인권 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5·18의 의미를 세계 보편 가치로 확장하는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기념관의 성격 설정, 전시 구성, 자료 보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도 약속했다.

공법3단체 관계자는 “지난 4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이뤄진 5·18 참여와 힌신은 충분히 조명 받지 못했고, 이를 기억하고 계승할 공간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며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는 전남의 상처를 치유하고 잊힌 역사를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나도 남구 가수다’ 3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유품호 남구TV 찾아가는 노래자랑 ‘나도 남구 가수다’ 하반기 결선에 참가한 시민동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최무강 어른신이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을 부르고 있다. 음악으로 소통과 학습을 이루는 노래자랑 경연 ‘나도 남구 가수다’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예선전을 거쳐 월별 결선, 상·하반기 결선무대를 통해 왕중왕전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남구는 오는 17일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왕중왕전에 오른 16~18개팀이 가수왕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최대 10cm 폭설…블랙아이스 주의보

광주·전남 5년간 결빙 교통사고 816건 발생

광주·전남 지역에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결빙 사고 더발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지난 날에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결빙사고 더발구역으로 분류된 곳은 광주 17곳, 전남 2곳이다. 결빙사고 더발구역은 반경 200m 내에서 노면 서리·결빙으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시방 사고 포함 시 2건 이상)을 의미한다.

광주에서는 북구와 광산구가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북구의 경우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사고 3건·부상 6명), 운암동 운암거리·임동거리·신안동 역전지구대 부근(사고 4건·부상 7명), 용봉동 좋은약국 부근△수신동 말바우사거리(사고 3건·부상 4명),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산구에서는 △우산동 광주여대입구사거리(사고 5건·부상 7명), △운남동 운남주공단지 앞 교차로(사고 4건·부상 9명), △월계동 첨단지구대 부근(사고 4건·부상 7명), △쌍암동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사고 3건·부상 9명), △수원동 밝은약국·흑석동 흑석사거리(각 사고 3건·부상 7명) 등이 포함됐다.

서구는 치평동 마트약국 부근·화정

동 농성교차로 부근(사고 3건·부상 5명), 매월동 풍암교차로 부근(사고 3건·부상 4명),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부근(사고 3건·부상 3명) 등 4곳이 결빙사고 더발구역으로 확인됐다. 남구에서는 복선동 나래야국 부근(사고 3건·부상 4명)이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 2곳이 위험 구간으로 지목됐다. 세부적으로 상동 터미널사거리 부근(사고 3건·부상 5명), 상동 이로피출소 부근(사고 3건·부상 4명) 등이 있다.

블랙아이스는 젖은 도로 또는 애스 팔트 색상처럼 보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제동·방향 조절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총 816건(광주 470건, 전남 346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 13명(광주 1명·전남 12명), 부상 1407명(광주 792명·전남 615명)의 피해를 입었다.

자차구들은 재난안전 지침에 따라 결빙사고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 자차구 관계자는 “눈·한파 특보가 예보되면 결빙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살포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상청은 오전 9시를 기해 신안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영광군은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전남 농업용수…나주시 “현 단계 추진 사실상 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나주시도 반대 입장을 밝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허가 신청 당시 보다 현재 주민 반대가 더 강해졌으며, 사업 이행 가능성(주민수용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종사업체는 1379억원이며 설비용량은 97.8MW(농어촌 상생발전 기여 19.56MW 포함)에 이른다. 이는 나주호 만수면적(803.6ha)의 10% 규모로, 단일 호수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해당한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민간 주도 주민참여형 형태로 재추진되다가 주민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고, 지난해 8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제출되면서 사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나주시가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나주호가 나주·영암·무안 등 1만21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사업이 이뤄질 경우 부유체 유기수로 과정에서의 오염 위험, 태양광 패널의 영향, 녹조 증가 등 복합적 환경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로 나주호 일대에서 8km 둘레길 개통, 전망공간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약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협약 체결, 민간 컨소시엄 선정 등 주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 공론화, 환경영향 검토 등 필수 단계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주호 인근 14개 면·동 주민과 시민단체는 “단 한 개의 패널도 허용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공동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주 지역의 미래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사업 제조검토와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신안 여객선 좌초’ 60대 선장 구속

승객과 선원 267명을 태우고 전남 군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종과 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

를 해야 하는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범에 따라 선장은 항구를 입·출항 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 누비아2호의 운행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폐지학교’ 행정업무 안내서 발간 도교육청, 현장 행정 경험 담아

전남도교육청은 3일 “학생 수 급감과 농신어촌의 특수한 여건으로 추진되는 ‘폐지학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노하우가 담긴 폐지학교 실무백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활동으로 완성됐다.

매뉴얼은 행정·재정·물품·기록물 관리 등 12개 분야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안문 예시·체크리스트·추진 일정표 등을 수록해 신규 담당자도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장의 혼선이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폐교 대상 학교에 배포하고 도교육청 누리집(jne.go.kr), 업무포털에도 탑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